제214호(2023. 1. 31.)
KREI 농정포커스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김동훈·박혜진

요 약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

-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함. 그러나 미래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함.
- 상당수의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세 부담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한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함.
- 도시민 응답자의 46.5%는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찬성 의사를 보임.

도시민의 37.2%는 향후 귀농·귀촌 희망, 농업인의 직업 및 생활 만족도 전년보다 하락

- 도시민 응답자의 37.2%는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며,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주된 이유임.
- 귀농·귀촌 시 이주 형태로 '영구 이주'보다 도시와 농산어촌 모두에 생활의 거점을 두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약간 더 많음.
- 직업으로서 농업에 '만족한다'(25.3%)는 농업인의 응답이 전년(27.9%)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며,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이 '좋아졌다'(25.8%)는 응답은 전년보다 감소(8.5%p)한 반면, '나빠졌다'(34.7%)는 응답은 증가(10.0%p)함.
-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69.9%), '일손 부족'(49.8%),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34.0%) 등의 순으로 응답함.

2022년 농식품 주요 이슈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자연재해'를 선택

-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관심이 많았던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안정'임.
- 이 외에 도시민은 주로 환경과 먹거리 관련 분야의 관심이 높고 농업인은 농업 소득 관련 분야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0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1.1.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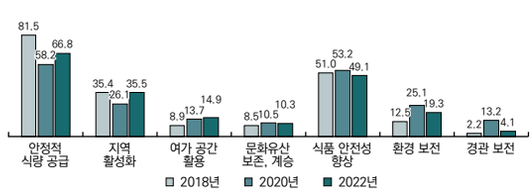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함. 미래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현재와 같이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하였으나,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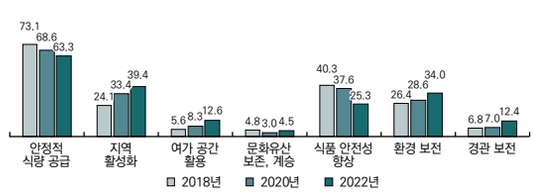
-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응답의 경우 도시민은 조사 시기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농업인은 '안정적 식량 공급'과 '식품 안전성 향상'이 감소하고 '지역 활성화', '환경 보전', '여가 공간 활용', '경관 보전'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응답의 경우 도시민은 '안정적 식량 공급'이 증가하고 '환경 보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반면 농업인은 '경관 보전'이 증가하고 '식품 안전성 향상'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그림 1〉 현재 및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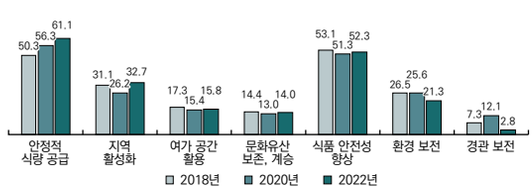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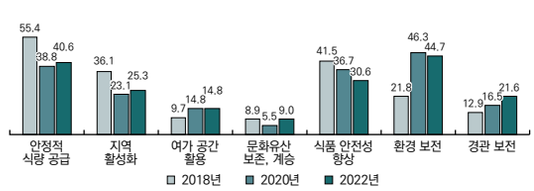
(도시민)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농업인) 현재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도시민)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농업인)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2.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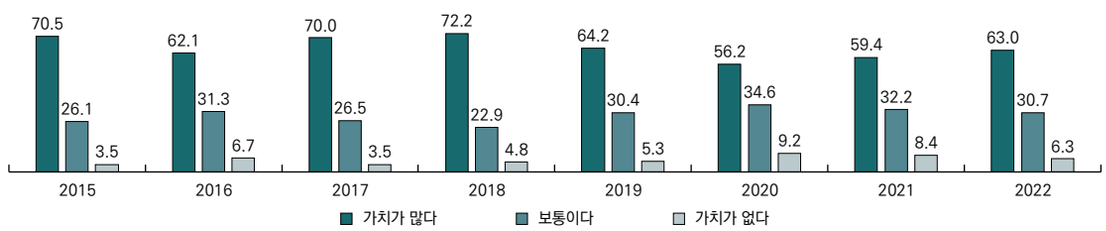
도시민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지니는 가치가 크다고 인식

농업·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도시민 63.0%는 '가치가 많다'('많은 편이다'와 '매우 많다'의 합산)라고 응답함.

-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을 공익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림 2〉 (도시민) 연도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 판단 변화

단위: %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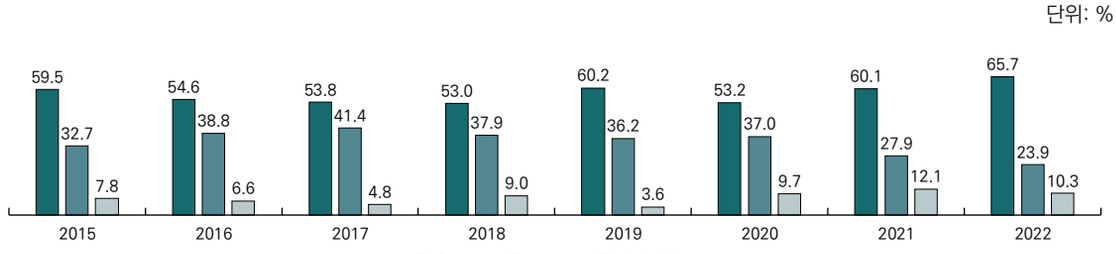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에 동의하는 도시민 비율 증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추가 세금 부담 여부에 대해 도시민의 65.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3.9%가 '반대한다'고 응답함.

- 추가 세금 부담에 동의하는 도시민 비율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도시민의 변화된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그림 3〉 (도시민) 연도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추가 세금 부담 의향 변화

단위: %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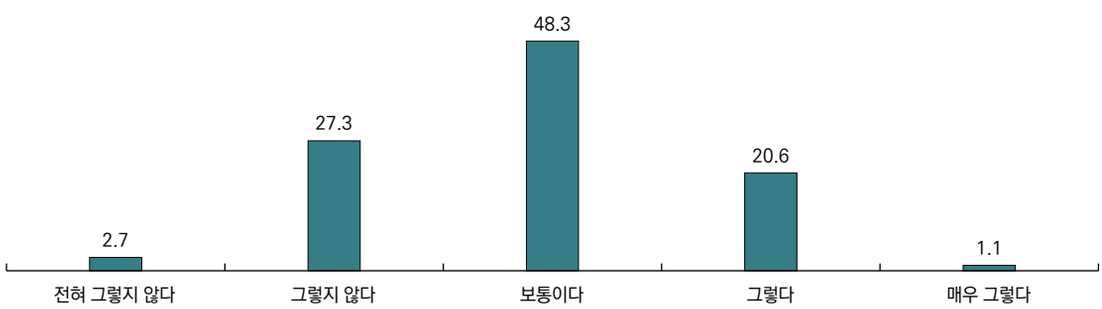
도시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식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 도시민 21.7%가 '그렇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산)라고 응답하여 30%인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의 합산)보다 낮게 나타남.

- '보통이다'가 48.3%로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 30.0%, '그렇다' 2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 (도시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 증진 관련 보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견해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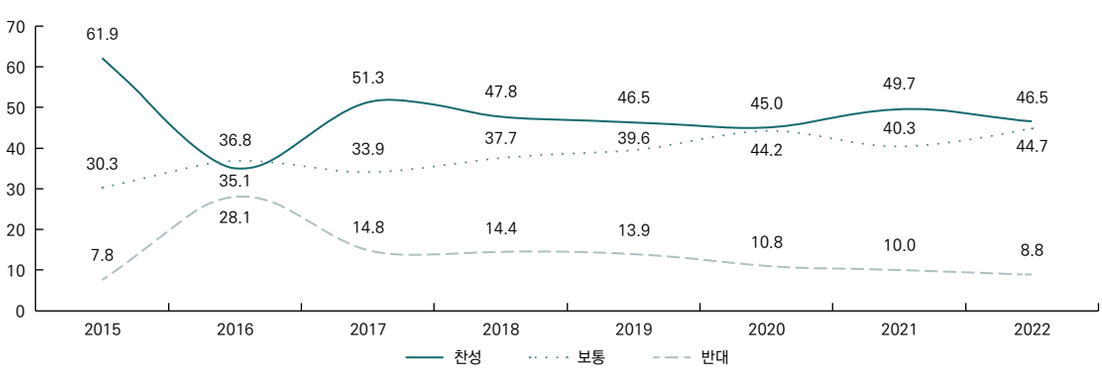
도시민,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

농촌복지와 관련한 예산 증대에 대해 도시민 46.5%가 '찬성한다'('찬성한다'와 '적극 찬성한다'의 합산)라고 응답하여 '보통이다' 44.7%와 '반대한다' 8.8%('반대한다'와 '적극 반대한다'의 합산)보다 높게 나타남.

- '찬성한다'와 '보통이다'는 큰 차이가 없으나 '반대한다'는 의견은 2016년(28.1%)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그림 5〉 (도시민) 연도별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한 견해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1.3. 시사점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함. 반면, 미래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은 현재와 같이 '안정적 식량 공급'을 선택하였으나 농업인은 '환경 보전'을 선택함. 이 외에도 도시민과 농업인은 '식품 안전성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음.

도시민 상당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 부담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농업인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고 농촌복지 관련 예산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음.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변화와 농촌지역의 어려운 생활 여건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02

도시민의 귀농·귀촌 및 농업인 생활 만족도

2.1.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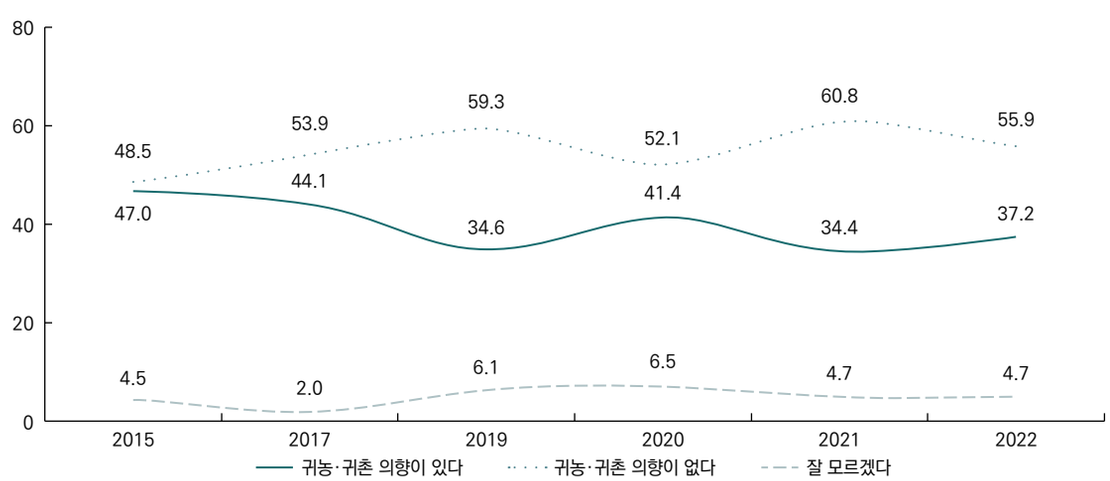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응답 비율은 37.2%로 전년보다 증가

도시민들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조금 있다'와 '매우 많다'의 합산)는 응답 비율은 37.2%로 2021년 대비 2.8%p 증가하였으며, '없다'('별로 없다'와 '전혀 없다'의 합산)는 응답 비율은 55.9%로 2021년 대비 4.9%p 감소함.

-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연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농촌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6〉 (도시민) 연도별 귀농·귀촌 의향 변화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표 1〉 (도시민) 응답자 특성별 귀농·귀촌 의향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연령	19~29세	16.4	79.5	4.1
	30대	28.1	65.6	6.3
	40대	38.2	53.9	7.9
	50대	46.3	43.6	10.1
	60세 이상	56.1	38.7	5.2
소득	2천만 원 미만	50.7	44.0	5.3
	2천~4천만 원 미만	39.5	54.0	6.6
	4천~7천만 원 미만	36.2	57.5	6.4
	7천만 원 이상	32.9	57.5	9.6
농촌 거주 경험 여부	있다	53.7	36.7	9.6
	없다	27.9	66.8	5.3
농업인 가족 존재 여부	있다	56.6	33.2	10.2
	없다	28.6	66.0	5.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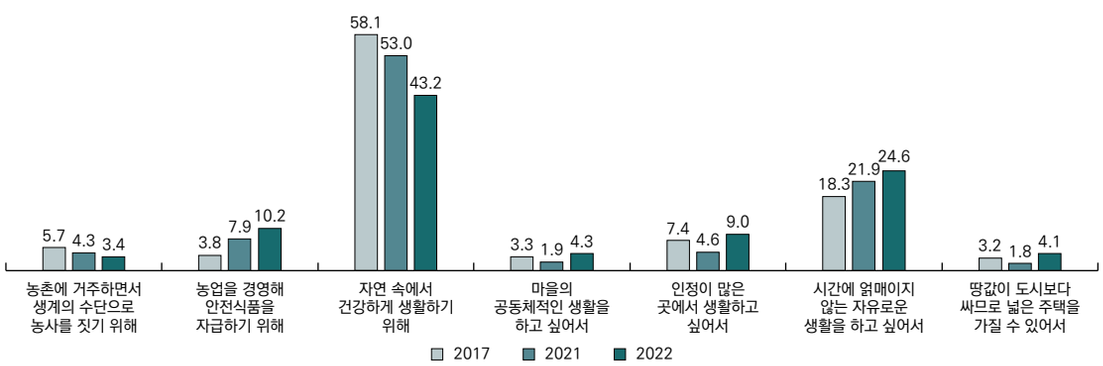
도시민의 귀농·귀촌 희망 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

도시민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였으며(43.2%), 다음으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24.6%를 차지함.

- 전년보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해'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아진 반면,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와 '농업을 경영해 안전식품을 자급하기 위해'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은 높아짐.

〈그림 7〉 (도시민) 연도별 귀농·귀촌 희망 이유

단위: %



주: '기타'와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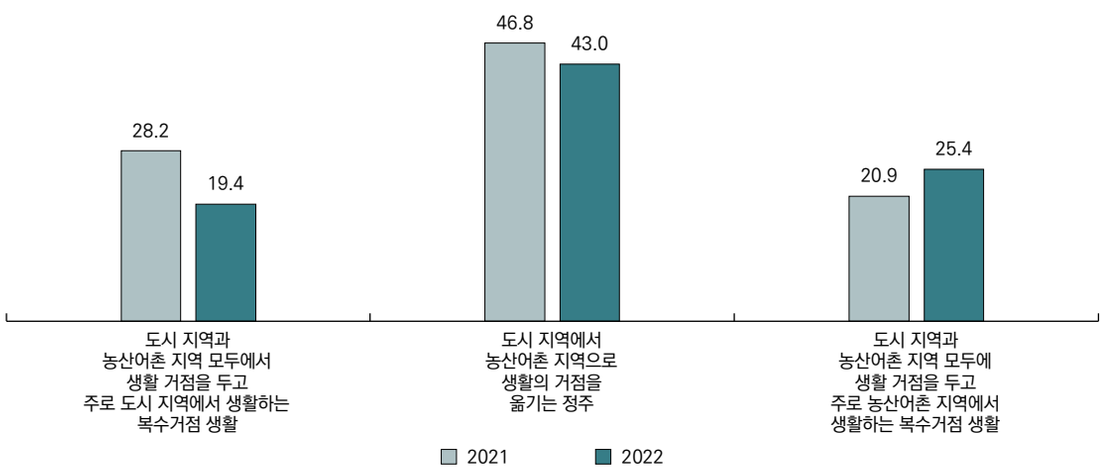
희망하는 귀농·귀촌 이주 형태로는 '영구 이주'와 '복수거점 생활'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의 '영구 이주' 응답 비율은 43.0%로 전년보다 3.8%p 감소하였고, '복수거점 생활' 응답 비율은 44.8%로 전년보다 4.3%p 감소함.

-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하는 도시민 중 '주로 농산어촌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이 25.4%로 '주로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비율 19.4%보다 높음.

〈그림 8〉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 시, 원하는 이주 형태

단위: %



주: '잘 모르겠다'와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2.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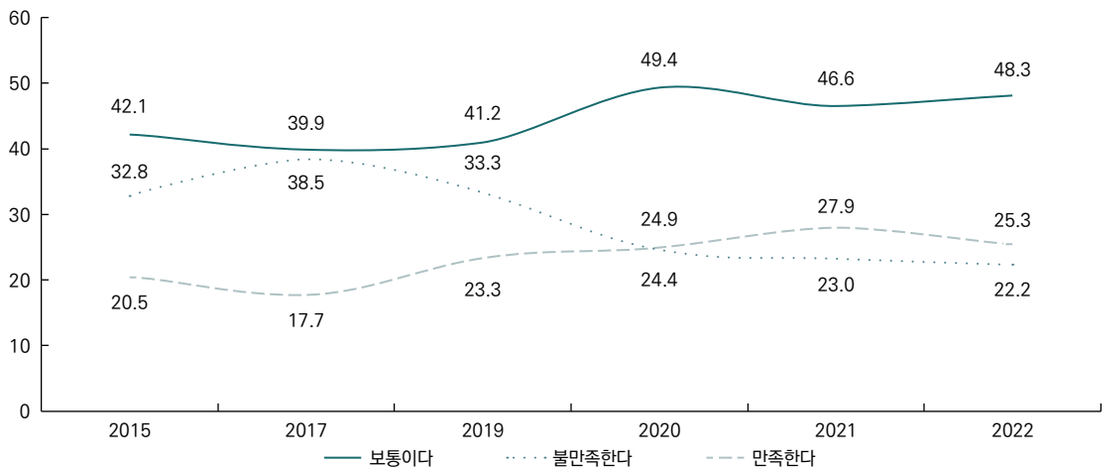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만족'과 '매우 만족'의 합산)는 응답 비율은 25.3%로 전년보다 2.6%p 감소하였고, '불만족한다'('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산)는 응답 비율은 22.2%로 전년보다 0.8%p 감소함.

- 농사일의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31.3%로 전년보다 2.7%p 증가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18.3%로 전년보다 3.0%p 감소함.
- 농업 수입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12.8%로 전년보다 1.5%p 감소하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7.3%로 전년보다 4.2%p 증가함.

〈그림 9〉 (농업인) 연도별 직업 만족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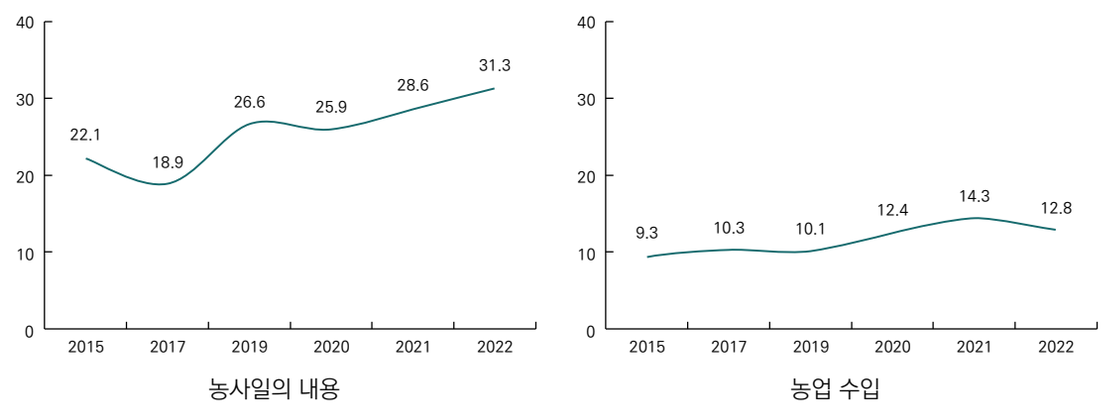
단위: %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그림 10〉 (농업인) 연도별 농사일의 내용 및 농업 수입에 대한 '만족' 응답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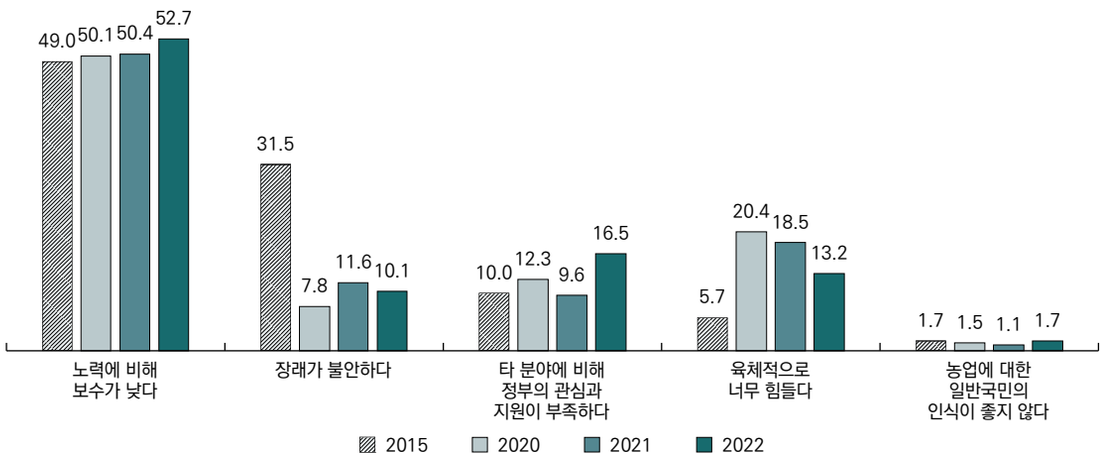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인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가 가장 많음.

- '노력에 비해 보수가 낮다'라는 응답 비율이 52.7%로 전년보다 2.3%p 증가함.
-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은 16.5%로 전년보다 6.9%p 증가한 반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응답 비율은 13.2%로 전년보다 5.3%p 감소함.

〈그림 11〉 (농업인) 연도별 직업으로서 농업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



주: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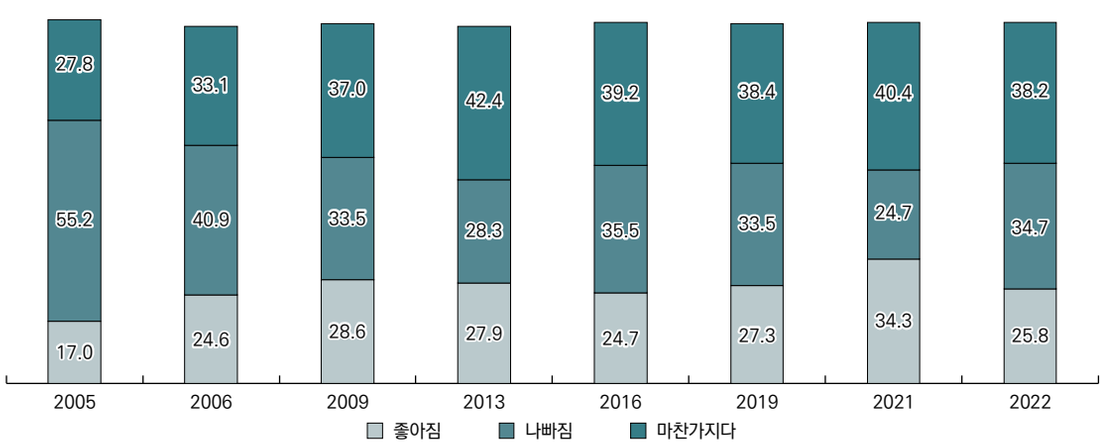
2.3. 농촌 생활 만족도와 농업경영 위협 요인

농업인,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 '좋아졌다' 전년보다 감소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25.8%로 전년보다 8.5%p 감소한 반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은 34.7%로 전년보다 10.0%p 증가함.

〈그림 12〉 (농업인) 연도별 5년 전 대비 농촌 생활 수준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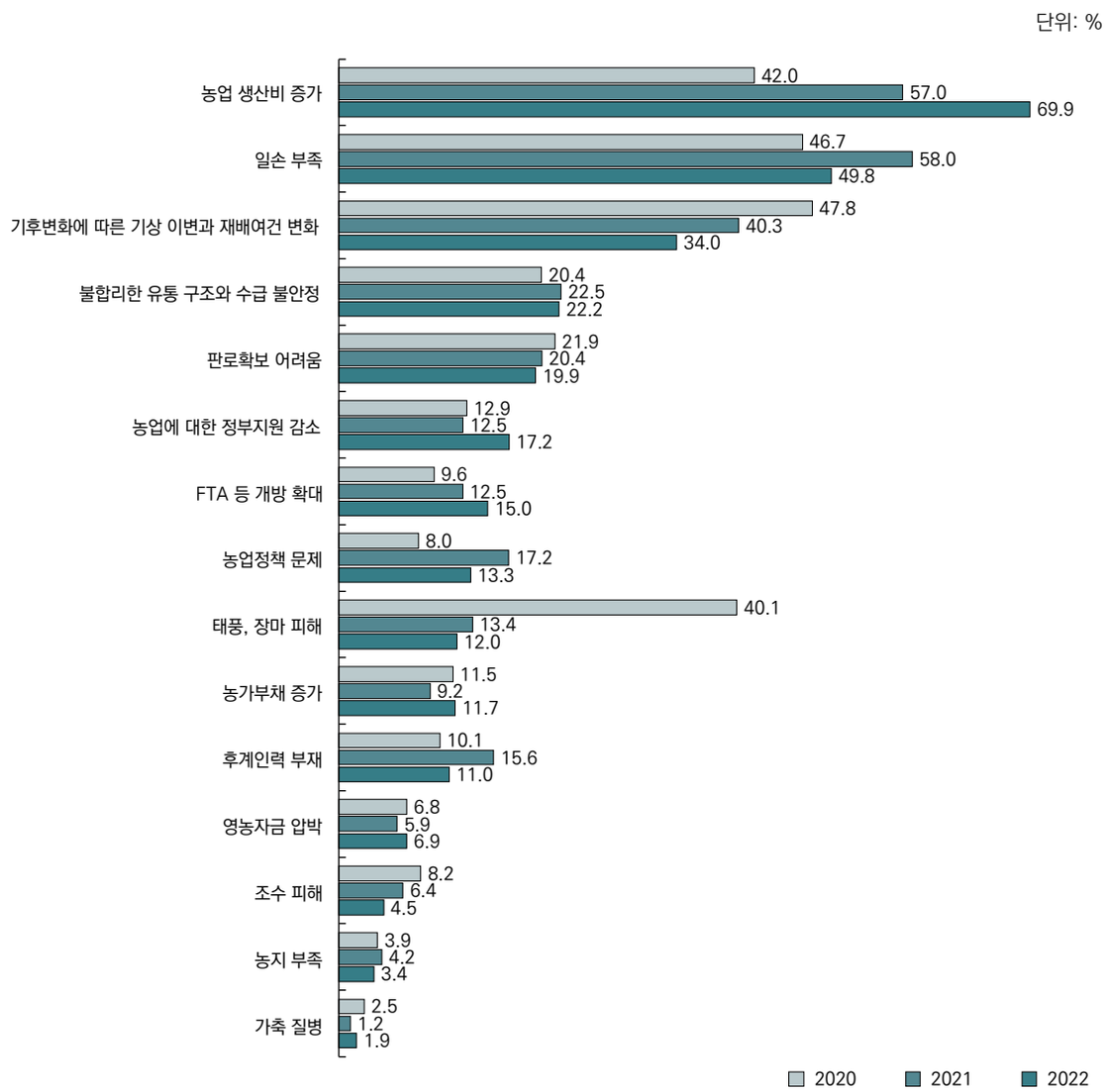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농업경영의 주된 위협 요소로 '농업 생산비 증가'(69.9%), '일손 부족'(49.8%),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34.0%) 등의 순으로 응답함.

- 전년보다 '농업 생산비 증가'의 응답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농업에 대한 정부지원 감소', 'FTA 등 개방 확대', '농가부채 증가', '영농자금 압박', '가축질병' 등에 대한 응답 비율도 증가함.
- 반면, '일손 부족',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여건 변화', '농업정책 문제', '후계인력 부재' 등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함.

〈그림 13〉 (농업인) 농업경영의 주된 위협 요소(복수응답)



주: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각 연도). 국민의식조사.

2.4. 시사점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요 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 등인 것으로 나타남. 영농 활동보다는 개인의 쾌적하고 자유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농촌으로의 영구 이주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에서의 다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

농업인의 전반적인 직업 및 생활 만족도는 전년보다 하락하였음. 농업인이 인식하는 농업경영의 가장 큰 위협요소는 '농업 생산비 증가'와 '일손 부족',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과 재배 여건 변화' 등인 것으로 나타남. 이 외에도 다양한 위협 요소가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함.

03

농업·농촌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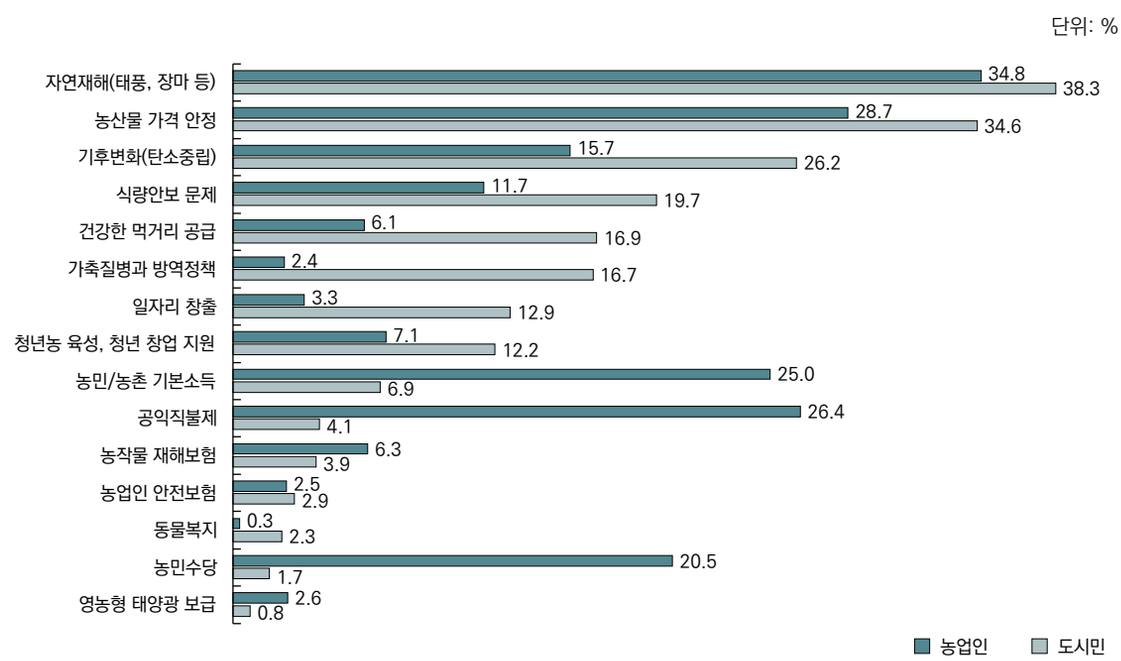
3.1. 농업 이슈에 대한 인식

2022년 농식품 분야 주요 이슈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를 응답

'자연재해(태풍, 장마 등)'와 '농산물 가격 안정' 이슈는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게 관심도가 높았는데,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의 관심도에 차이가 있음.

- 도시민의 관심도는 '기후변화(탄소중립)'(26.2%), '식량안보 문제'(19.7%), '건강한 먹거리 공급'(16.9%), '가축질병과 방역정책'(16.7%) 등 주로 환경과 먹거리 관련 분야에 대해 높았음.
- 농업인의 관심도는 '공익직불제'(26.4%), '농민/농촌 기본소득'(25.0%), '농민수당'(20.5%) 등 주로 농업 소득 관련 분야에 대해 높았음.

〈그림 14〉 2022년 농식품 이슈 중 관심이 많았던 분야(복수응답)



주: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3.2.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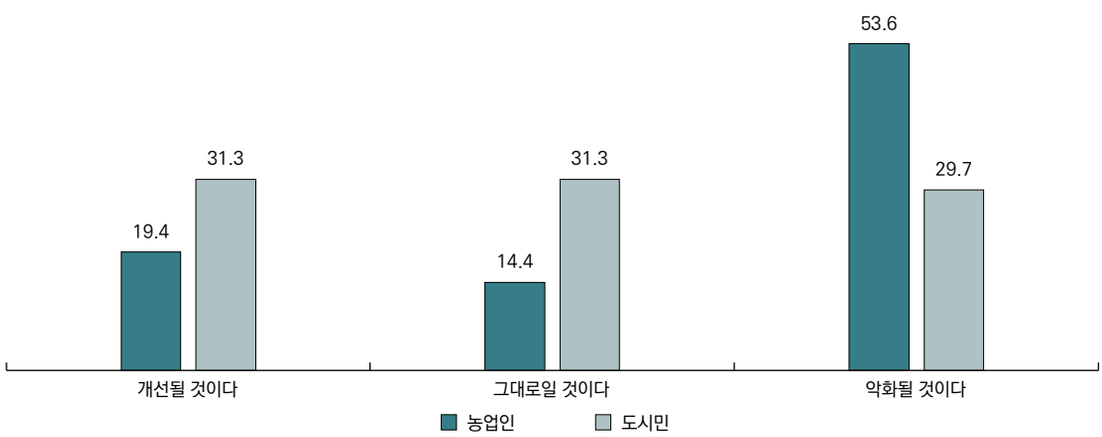
1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수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도시민과 농업인 간 차이 존재

도시민 중에서는 '개선될 것이다'와 '그대로일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1.3%로 높았는데, 농업인 중에서는 '악화될 것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53.6%로 가장 높았음.

- 1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관련 위험성을 농업인이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5〉 10년 후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주: '잘 모르겠다',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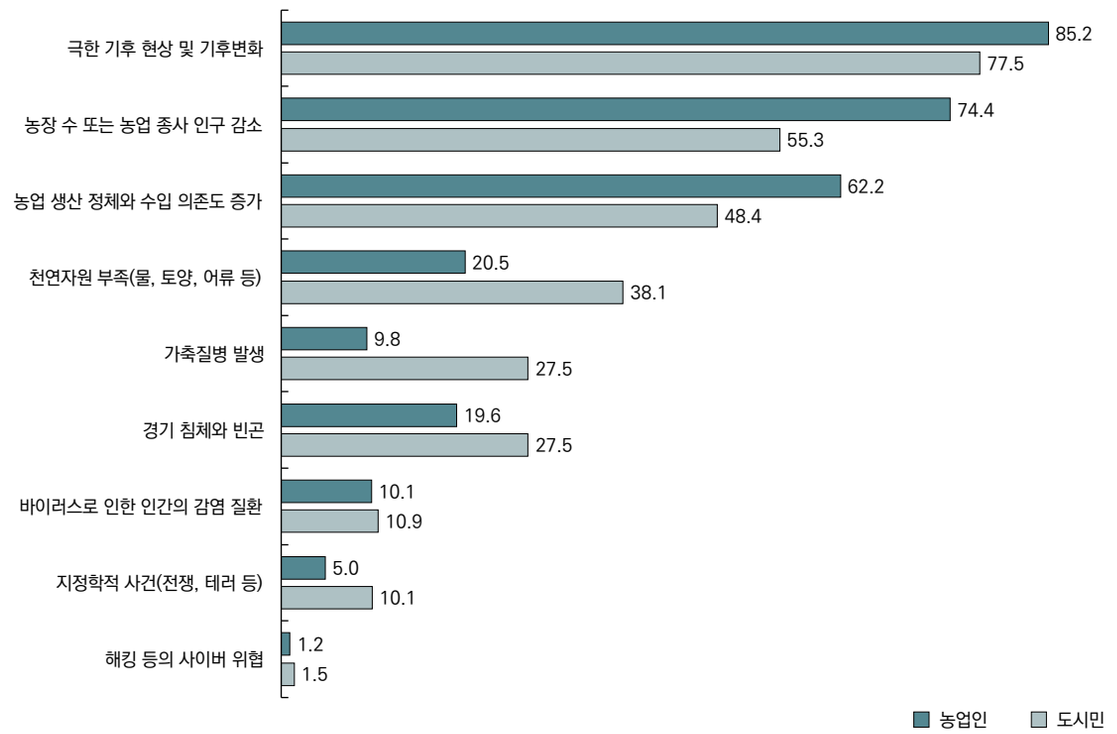
식량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극한 기후 현상 및 기후변화' 꼽아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극한 기후 현상 및 기후변화' 외에 '농장 수 또는 농업 종사 인구 감소', '농업 생산 정체와 수입 의존도 증가', '천연자원 부족(물, 토양, 어류 등)' 등을 식량안보의 주요 위협 요소라고 응답함.

- 도시민은 이 외에 '가축질병 발생'과 '경기 침체와 빈곤'(각 27.5%),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감염 질환'(10.9%), '지정학적 사건(전쟁, 테러 등)'(10.1%)의 순으로 응답함.
- 농업인은 이 외에 '경기 침체와 빈곤'(19.6%),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감염 질환'(10.1%), '가축질병 발생'(9.8%) 등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16〉 식량안보의 주된 위협 요소(복수응답)

단위: %



주: '기타', '잘 모르겠다',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은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에서 50~60%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도시민의 35.1%, 농업인의 30.1%는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을 50~60% 수준이라고 응답함.

- 식량자급률 적정 수준이 50%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도시민 34.0%, 농업인 17.0%이며, 60% 이상이라는 응답 비율은 도시민 31.0%, 농업인 49.9%로 나타나,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은 도시민보다 농업인 사이에서 더 높음.

〈표 2〉 우리나라 적정 식량자급률 수준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의 견해

단위: %

구분	40% 미만	40~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 이상
도시민	10.7	23.3	35.1	22.1	7.7	1.2
농업인	3.5	13.5	30.1	23.9	16.2	9.8

주: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3.3.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농업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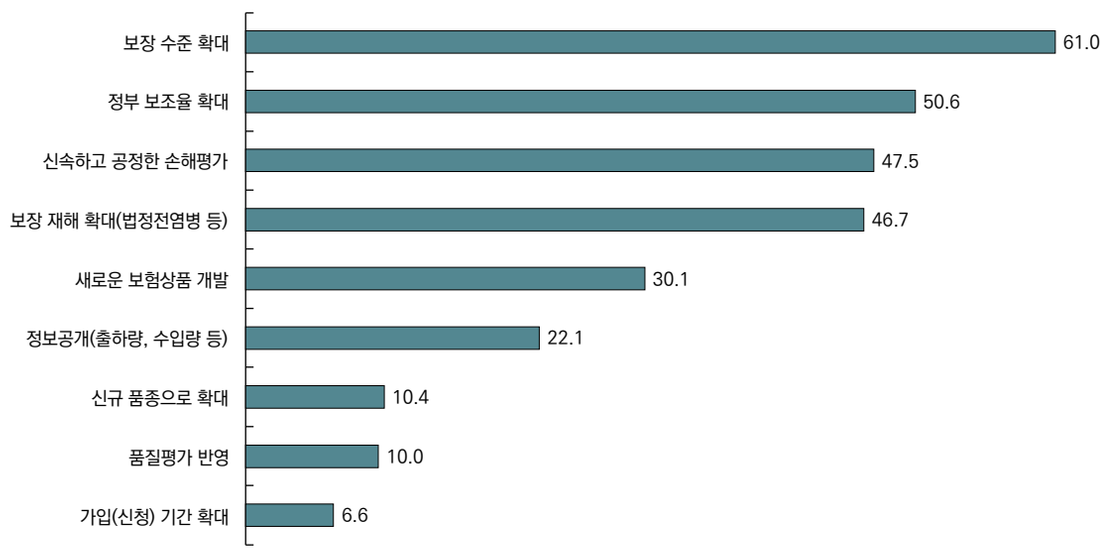
농업인이 요구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장 필요한 사항은 '보장 수준 확대'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보장 수준 확대'(61.0%)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정부 보조율 확대'(50.6%),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47.5%), '보장 재해 확대(법정전염병 등)'(46.7%)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반면, '신규 품종으로 확대'(10.4%), '품질평가 반영'(10.0%), '가입(신청) 기간 확대'(6.6%)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17〉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복수응답)

단위: %



주: '기타', '잘 모르겠다',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책 지원(농업용 면세유 지원, 직불금 등)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어느 정도 알고 있다'와 '매우 잘 알고 있다'의 합산)는 응답 비율이 92.7%로 매우 높음.

- 반면, '모른다'('전혀 들어본 적 없다'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엇인지 모른다'의 합산)는 응답 비율은 4.1%로 매우 낮음.

〈표 3〉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단위: %

구분	전혀 들어본 적 없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엇인지 모른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매우 잘 알고 있다
비율	0.9	3.2	29.4	63.3

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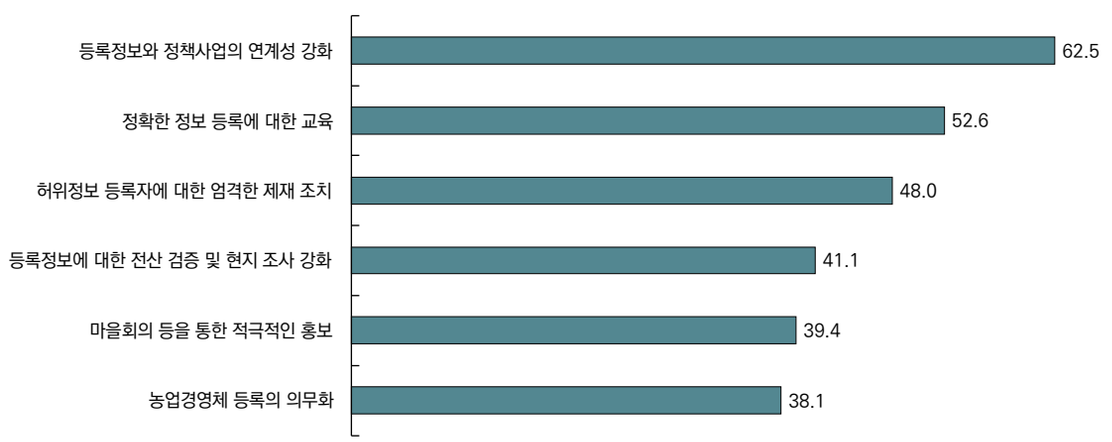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정보와 정책사업의 연계성 강화' 필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등록정보와 정책사업의 연계성 강화'(62.5%)를 꼽은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확한 정보 등록에 대한 교육'(52.6%), '허위정보 등록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조치'(48.0%), '등록정보에 대한 전산 검증 및 현지 조사 강화'(41.1%) 등의 순이었음.

- 반면, '마을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39.4%)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의무화'(38.1%)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18〉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방안(복수응답)

단위: %



주: '기타', '모름'과 무응답 비율은 제외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국민의식조사.

3.4. 시사점

2022년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관심을 끈 이슈는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물가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도시민의 경우 주로 환경과 먹거리, 농업인의 경우 주로 농업 소득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의 미래 식량안보에 대한 도시민과 농업인 간 인식 차이가 있음. 특히 농업인이 식량안보 관련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식량안보의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는 기후변화, 농업 인구 감소, 농업 생산 정체 및 수입 의존도 증가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요인이라고 인식함. 이와 같은 위협 요소에 대응한 식량안보 체계 구축과 합리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농업인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보장 수준, 정부 보조율, 보장 재해 범위 등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임. 향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부 록

조사 개요 및 방법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농업인 1,078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578명을 대상으로 조사[1)]

- 농업인과 도시민의 의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정 문항과 정책 현안 등을 포함한 비고정 문항으로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음.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가운데 주요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보고서를 참조 바람.

〈부표 1〉 조사 대상 및 설계

구분	농업인	도시민
조사 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전국 도시지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제주 포함)	전국(제주 포함)
표본 크기	1,078명	1,500명
조사 방법	우편조사	가구 방문 면접 조사
표본 추출 방법	전국 읍면 거주 농업인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표본오차(95% 신뢰 수준)	고정 표본 사용	± 2.5%p
조사 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자료: 저자 작성.

1) 농업인은 연구조사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과거 조사연계 등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시민은 조사전문기관인 (유)맨틀코리아에 의뢰해 일반적인 사회조사 표본 추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참고문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2021). 국민의식조사.

KREI 농정포커스

감 수	김정섭 선임연구위원	061-820-2252	jskkjs@krei.re.kr
내 용 문 의	김동훈 전문연구원	061-820-2368	donghoon@krei.re.kr
발간물문의	유정인 선임전문원	061-820-2282	edela@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214호

2022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23. 1.

발 행 인 김홍상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I S S N 2672-0159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